



## 미국에서 만난 BTS 아미

---

저자 (Authors)	양승준
출처 (Source)	<a href="#">관훈저널 60(4)</a> , 2018.12, 143-150(8 pages) <a href="#">Kwanhun Journal 60(4)</a> , 2018.12, 143-150(8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관훈클럽</a> kwanhun club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78195">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78195</a>
APA Style	양승준 (2018). 미국에서 만난 BTS 아미. 관훈저널, 60(4), 143-150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20/01/27 13:56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미국에서 만난 ‘BTS 아미’



양승준 | 한국일보 문화부 대중  
음악 담당 기자

-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졸업
- 한국일보 입사

### 〈아이돌〉 탈춤 따라한 미국 관객

“**얼**쭉 좋다.” 10월 6일(현지 시간) 오후 미국 뉴욕 퀸스의 시티필드. 한국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에서 첫 곡으로 〈아이돌〉 후렴구가 흘렀다. 자리에서 일어난 관객들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오른팔을 흔든다. 한국 전통탈춤에서 따온 〈아이돌〉 춤을 노랫말에 맞춰 따라 하는 동작이 익숙해보였다. 오랜 반복을 통해 몸에 밴 조건반사 같은 반응이었다.

방탄소년단이 또 다른 곡 〈매직쇼〉에서 “소 쇼우 미”(So Show Me)라고 외치자 관객들은 “아일 쇼우 유”(I’ll Show You)라고 화답했다. 한국말로 된 노래도 곧잘 따라 했다. 〈DNA〉를 비롯해 〈불타오르네〉 등 방탄소년단 노래 32곡이 흐르는 동안 관객들은 그룹 전용 야광 응원봉을 흔들며 어둠이 깔린 공연장을 밝혔다. 4만여 관객의 함성은 3시간 공연 내내 끊이지 않았다. 방탄소년단 한국 공연 풍경과 똑같았다. 다른 건 관객의 피부색과 국적뿐

이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방탄소년단의 공연 다음날인 7일 낸 리뷰 기사에 현장 분위기를 “때론 땅이 흔들릴 정도로 활기찼다”라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의 미국에서의 활약을 조명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간 한국 취재진도 차마 쓰지 못했던 열광의 표현은 미국 언론에서 먼저 나왔다.

## 공연 일주일 전부터 텐트 치고 노숙

공연보다 흥미로웠던 건 공연장 밖 풍경이었다. 공연 사흘 전인 3일 오후. 사전답사 차 찾아가던 공연장 주차장엔 100여 채의 텐트가 들어서 있었다. 공연장 입석은 선착순으로 채워진다. 조금이라도 빨리 공연장에 들어가 무대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방탄소년단 팬들은 공연장 주변에 텐트를 치고 노숙을 했다. 좋아하는 K팝 아이돌을 앞에서 보기 위한 미국 팬들의 몸부림이었다.

초록이 우거진 야영장도 아니고 도심 한복판에서 들어선 텐트촌이라니. 미국 아이돌인 저스틴 비버나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장에서도 볼 수 없던, 방탄소년단이 만든 이색 풍경이었다.

공연장 입장 경쟁은 치열했다. 텐트촌 맨 앞에 텐트를 친 네 명의 관객을

만나보니 이들은 공연 일주일 전인 9월 29일부터 공연장에서 줄을 섰다고 했다. 네 명 중 세 명은 백인계 미국인이었다. 직장에 일주일 휴가를 내고



방탄소년단의 미국 공연을 보기 위해 텐트를 치고 노숙하는 팬들.

온 관객도 있었다. 가족과 동료들이 노숙을 걱정하진 않을까. 공연 닷새 전부터 밖에서 기다렸다는 직장인 젠 씨는 “직장과 집에서 이미 방탄소년단의 열광적 팬인 걸 다 안다”며 웃었다. 그의 입에선 “방탄소년단 가즈아!”란 한국말까지 나왔다.

미국 ‘아미’에게 방탄소년단 공연 대기 캠핑은 ‘축제’처럼 보였다. 이들은 캠핑용 의자에 둘러앉아 아이스박스에서 음료를 꺼내 준비해 온 음식을 나눠 먹었다. ‘보초’도 돌아가며 섰다. 서로 순번을 정해 텐트를 지키거나 인근에 따로 잡은 숙소에서 몸을 씻거나 휴식을 취하는 식이었다.

시티필드 공연 주변 열기는 한국보다 뜨거웠다. 인근 호텔 투숙비는 평소보다 5배가 뛰었다. 뉴욕 지하철 공사는 방탄소년단 공연장을 지나가는 지하철을 추가 편성했다. 조용필이 한국가수 최초로 2003년 잠실종합운동장 공연 티켓 매진을 기록하면서 지하철 2호선이 공연 당일 연장운행된 것과 같은 사례다. 뉴욕 지하철 승강장엔 방탄소년단 공연장 가는 방법을 안내하는 한글 안내문까지 붙었다.

## 비틀스 이후 53년 만에…‘K팝 인베이전’

방탄소년단이 공연한 시티필드는 미국 프로야구 구단인 뉴욕 메츠의 홈구장이다. 4만여 명을 수용하는 대형 공연장이다. 한국으로 따지면 잠실종합운동장급 규모다. 이런 곳에서의 공연을 ‘스타디움 공연’이라고 부른다. 한국가수가 미국에서 스타디움 공연을 열기는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2012년 세계를 ‘말춤’(노래 <강남스타일>)으로 들썩이게 했던 싸이도 미국에서 스타디움 공연을 꾸리지 못했다. 시티필드는 대관이 까다롭기로도 유명하다. ‘록의 전설’로 통하는 비틀스 멤버인 폴 매카트니와 비욘세 등 톱스타들만 이곳에서 공연한 걸 보면 알 수 있다.

시간을 53년 거슬러 올라가 1965년. 비틀스는 당시 뉴욕 메츠 홈구장이던 세이스타디움에서 공연해 영국 가수의 미국 음악시장 진출을 일컫는



방탄소년단의 미국 공연 모습.

‘브리티시  
인베이션’  
의 시작을  
알렸다. 방  
탄소년단  
은 반세기  
가 지나 현  
뉴욕 메츠  
홈구장에  
올랐다. 방

탄소년단이 막을 연 ‘21세기 K팝 인베이션’이었다. 1980~1990년대 한국 젊은이들이 당시 활약했던 미국 아이돌그룹 뉴 키즈 온 더 블록에 열광했던 것처럼 미국의 요즘 청년은 방탄소년단에 환호했다.

2007년 세븐을 시작으로 보아·원더걸스 등 K팝 아이돌은 미국 음악시장에 꾸준히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주류 시장의 문은 쉬 열리지 않았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스타디움 공연을 성사시켰다는 건 방탄소년단이 두터운 현지 팬덤을 기반으로 미국 주류 음악 시장에 발을 들였다는 뜻이다. 방탄소년단은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오كل랜드·포트워스·해밀턴·뉴어크·시티필드 등에서 북미 순회공연을 진행해 22만여 관객을 불러 모았다. 총 15회의 공연 티켓은 모두 동이 났다. 2017년 미국 지상파 ABC를 통해 전역에 생중계된 현지 3대 음악 시상식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DNA〉를 불러 대중적으로 얼굴을 알리고, 올해 낸 두 장의 앨범으로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에 두 번 연달아 밟아 명성을 쌓은 결과다.

미국에서 방탄소년단 공연티켓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팬은 방탄소년단의 시카고 공연 티켓 1장을 3,849달러(약 430만 원)에 샀다. 암표시장에서 방탄소년단 공연티켓은 1장당 평균 823달러(약 90만 원)에 팔렸다고 한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2018 레퓨테이션 투어’ 티켓보다 두 배 비싸게 거래되고 있었다.

## 〈봄날〉에 실린 세월호 추모 의미까지 알아

미국인들이 원더걸스와 빅뱅 그리고 싸이도 아닌 방탄소년단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곡에 담긴 ‘메시지’였다. 시티필드에서 만난 관객 20명에게 다른 K팝 아이돌그룹과 달리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이유를 묻자 돌아온 답변이었다. 일부러 K팝 주 소비층이 아니었던 백인 관객들 위주로 찾아가 물었는데 한 명도 예외는 없었다. 모두 가사 내용을 알고 있다는 얘기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찾아 듣는 이유가 세련된 뮤직비디오와 노래, 절도 있는 군무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노래 〈봄날〉에 세월호 추모의 뜻이 담겼다는 걸 아는 관객도 있었다. 마이애미에서 온 대학생 케이틀린 씨는 “〈봄날〉을 좋아한다”며, “뮤직비디오에서 (방탄소년단 멤버인) 지민이 바닷가에서 누군가의 신발을 집어 들고 있는 장면 등이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봄날〉 뮤직비디오 해석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곡에 숨겨진 얘기를 알게 됐다는 설명이었다. 20명 중 8명은 〈아이돌〉 후렴구인 “얼썬 좋다”와 “지화자 좋다”가 옛날 한국 사람들이 흥이 났을 때 쓴 감탄사라는 것도 알았다.

버지니아주에서 왔다는 고등학생 에이전은 방탄소년단이 “우리의 삶을 얘기해 좋다”고 했다. 마약과 사랑 그리고 돈 자랑만 하는 노래가 아니라 좋단다. 미국에선 방탄소년단처럼 교육문제나 청춘의 성장통을 현실감 있게 다룬 가수를 찾기 어렵다. 방탄소년단은 “내 일주일 월화수목 금금금 금”(〈고민보다 고〉), “난 6포 세대”(〈쩔어〉)라며 세상을 비판하고 “억압만 받던 인생 네 삶의 주어가 되어봐”(〈노 모어 드림〉)라며 좌절한 청춘을 일으켜 세운다. 세상을 향한 방탄소년단의 ‘진정한 언어’가 미국 주류 문화의 장벽을 허문 셈이다.

뉴욕에 사는 아미의 모임 'BTSxNYC'를 운영하는 엠마는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에필로그: 영포에버>를 꼽았다. “넘어지고 다치고 아파도 끝없이 달리네 꿈을 향해”란 가사가 좋다”며, “우리 모두 꿈과 희망이 있고 포기하지 않아야 하잖나. 이런 게 진짜로 날 흔드는 것”이란 게 이유였다. 엠마는 방탄소년단을 알기 전엔 K팝에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 유엔 연설 후...미국 교육 현장까지

방탄소년단은 미국에서의 반향은 9월부터 커지는 분위기였다. 글로벌 청년 대표로 미국 뉴욕 유엔본부 행사에 참여한 방탄소년단 리더인 RM이 “어제의 나도 나이고, 오늘의 부족하고 실수하는 나도 나”라며, “가슴을 뛰게 하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자”고 호소한 뒤부터였다. ‘너를 사랑하라’를 주제로 2년 동안 낸 시리즈 앨범의 선한 영향력이 “너 자신을 말하라”라는 연설로 시너지 효과를 낸 결과였다.

RM이 영어로 한 6분의 연설은 ABC로 생중계됐다. RM이 세상에 던진 긍정의 메시지는 미국 교육 현장에 반향을 낳았다.

현지 학교에선 선생과 제자들이 RM의 연설을 공유하며 자기 긍정의 중요성을 토론했다. 로봇학을 가르치는 코스텔로 코너는 9월 24일 수업 전 칠판에 ‘Find your name and find your voice and #Speak yourself’란 문장을 적었다. ‘네 이름과 목소리를 찾고 너를 세상에 말하라’는 뜻으로 RM이 한 연설 내용 일부였다. 코너에 인용한 이유를 물어보니 “수업 때마다 학생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적는다”며, “아침에 RM의 유엔 연설을 TV로 보고 너무 인상 깊어 그날 칠판에 적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방탄소년단의 메시지가 내가 가르치는 젊은 세대들에겐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해” 연설 내용 일부를 학생들과 공유했다는 설명이었다. 코너는 뉴저지주 에그하버 타운십에 있는 편우드 중학교 교사다.

시카고주에 살며 시카고트리뷴 등 현지 일간을 칼럼을 쓰는 김재하 씨는

“아들이 다닌 초등학교에서 7명이 넘는 비아시아계 학부모가 내게 방탄소년단 유엔 연설 봤냐고 묻더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의 유엔 연설은 현지의 청년을 뒤흔들었다. 미국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엔 ‘#Speak Yourself’ 관련 글들이 쏟아졌다. “어려서 성적 학대를 자주 받다 그런 나를 혐오하게”(go\*\*\*\*) 됐고, “찾은 이사로 친구를 제대로 만들 기회가 없었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 사람들이 날 가난해서 싫어하는 줄”(ji\*\*\*\*) 알고, “성정체성을 알지 못해 고민”(jcn\*\*\*\*)하다 힘든 시절을 겪었지만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메시지를 계기로 용기를 냈다는 글이 온라인에 굴비 엮이듯 올라왔다.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유엔 연설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 세상과 쌓았던 담장을 허물고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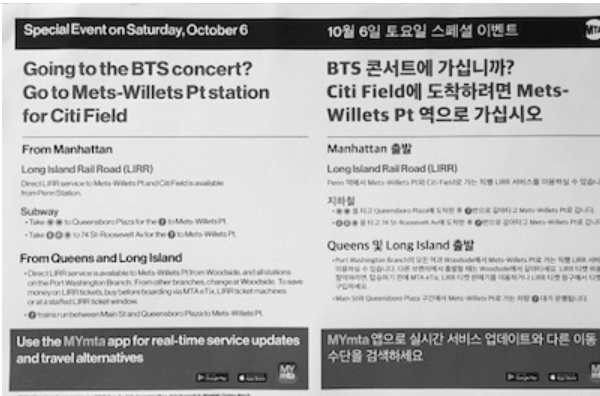
방탄소년단 노래의 미국 라디오 선곡 신청을 주도하는 ‘BTSx50states’ 동북지부 ‘BTSxNortheast’ 운영자인 닐암은 “청년을 걱정하고 더 나아가 청년이 변화길 바라는 보이그룹을 전엔 본 적이 없다”며, “방탄소년단의 그런 메시지가 내겐 음악을 넘어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의미를 뒀다.

## “방탄소년단으로 영어 밖 세계 눈 떠”

방탄소년단은 미국에서 세대를 아울러 사랑받는 가수로 성장했다. 뉴욕에 사는 학부모 손·제이미 부부는 아들뻘 되는 방탄소년단을 보러 시티필드를 찾았다. 열한 살 딸 라이언과 그의 친구 메isi와 함께였다. 제이미는 RM의 팬. RM의 영어 이름 장식이 달린 머리띠를 하고 공연장을 찾은 그는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유엔 총회에 자화자찬 연설로 놀림을 받았지만 RM의 연설은 정말 감동적이지 않았느냐”며 웃었다. 손·제이미 부부처럼 공연장에 가족 단위로 온 관객들이 적잖이 눈에 띄었다.

시티필드를 찾은 교육학자 라프란즈 데이비스가 방탄소년단 팬이 된 후 겪은 변화는 흥미롭다. 그가 들려준 사연은 이랬다. 데이비스는 지난해 집





방탄소년단의 미국 공연 소식을 안내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우연히 TV로  
아메리칸 뮤직 어  
워즈를 보고 방탄  
소년단을 처음 알  
았다. 방송을 보며  
SNS로 방탄소년단  
열기를 확인한 그  
는 <DNA>를 다시  
찾아 들었다. 한국  
어로 된 노랫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경쾌한 멜로디로 행복감을 느꼈다. 오랫동안 경험  
하지 못한 감정이었다.

데이비스는 노랫말까지 파고들었다. 춤과 멜로디뿐 아니라 일곱 청년의  
이야기까지 알고 싶었다. 그는 지난해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좋  
아하던 미국 가수들 CD조차 사지 않았던 그는 결국 방탄소년단의 2집 ‘러  
브 유어셀프 승 허’와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CD를 샀다.

이 경험을 통해 데이비스는 ‘영어 중심 세계관에서 벗어난’ 자신을 발견  
했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그는 영어로 된 미국 문화만 즐겼다. 비욘세와 노  
래와 드라마 <왕좌의 게임> 등이 있는데 굳이 다른 언어로 된 콘텐츠를 찾  
아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 데이비스는 “방탄소년단을 계기로 내  
좁은 시각으로 세계를 즐기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K팝 아이들은 해외에서 ‘연예기획사에서 길러진 소년, 소녀들’로 호명됐  
다. 그들의 음악은 때론 ‘천편일률 공장형 음악’으로 치부됐다. 방탄소년단  
은 해외에서 깊이와 생명력 없는 음악으로 여겨지는 K팝에 새 길을 내고  
있었다. 저판  
별론